

KIMA⁺plus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February. 2015 | Vol. 04

KIMA WEEK 2014 성공적 개최 REVIEW 부산국제보트산업전

+ World

익스트림 세일링 시리즈 부산에서 만나자!
브라질 쉐퍼요트 부산을 주목하다

+ Special

메디컬 한류 해양레저로 통하다

+ Issue

2014 국회정책토론회

29 < 71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地球)가 아니라 해구(海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71%를 차지하는 곳 -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곳 -
산소의 75%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의 50%를 흡수하는 곳 -
태양열의 80%를 흡수해 온도를 유지해 주는 열저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地球)가 아닌 해구(海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과 수입의 99.7%도 바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행복, 더 큰 미래 -
해양수산부가 바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The New S-Class Coupé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해운대 전시장
문의: 1688 - 2369(Benz)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주)

대표번호 1688-2369(Benz)

※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080-001-1886

해운대 전 시 장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

울산 전 시 장 : 울산 남구 삼산로 83

해운대 서비스센터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

울산 서비스센터 : 울산 남구 삼산로 83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63 AMG 4MATIC Coupé 5.461cc, 214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2km/l(도시연비:6.2km/l, 고속도로연비:9km/l), 복합CO2 배출량 251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KIMA+ plus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Vol. 04 | February, 2015



발행처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조직위원회
발행인 문철호
편집인 여한웅
기획·편집 안효영
디자인·제작 하늘기획 051.611.3970
발행일 2015. 02. 10
add.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8번길 69
tel. 051.760.1130
web. www.kimaweek.org

KIMA+ plus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의 홍보용 매거진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KIMA+ plus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생필프가 50% 이상 함유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인쇄, 제작하였습니다.

04 KIMA WEEK 2015

바다 위로 새로운 희망이 떠오릅니다

06 KIMA WEEK 2014

KIMA와 함께 한 일주일
해양레저와 함께 더욱 빛나는 부산

08 KIMA Special 01

REVIEW
해양레저도시 부산의 새로운 얼굴
부산국제보트산업전

PREVIEW
KIMA WEEK 2015 주요 콘텐츠

16 KIMA+ World

익스트림 세일링, 이제 부산에서 만나자!
브라질 쉐퍼요트, 부산을 주목하다!



26 KIMA+ Culture

옛그림 속에 만난 한국의 뱃놀이
심사정의 선유도

28 KIMA Special 02

의료관광선진도시 부산
해양관광인프라로 매력을 더하다

메디컬 한류, 해양레저로 통하다
중국 청화대 단동제일병원, 부산 팸투어

인텐시브의료관광, 부산을 주목하다
독일 칼자이스, 부산에서 학회 개최



47 KIMA+ Report

KIMA WEEK 2014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
결과보고서 요약본

34 KIMA+ Issue

2014 국회정책토론회
해양레저 규제완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40 KIMA+ People

해양레저 통한 경제활성화 길 찾기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인터뷰 「나성린 국회의원」

42 KIMA+ Industry

아론비행선박산업(주) | (주)성동마린 | 스코트라(주) | 아트헨즈

46 KIMA+ Brief

주요단신기사



바다 위로 새로운
희망이
떠오릅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갱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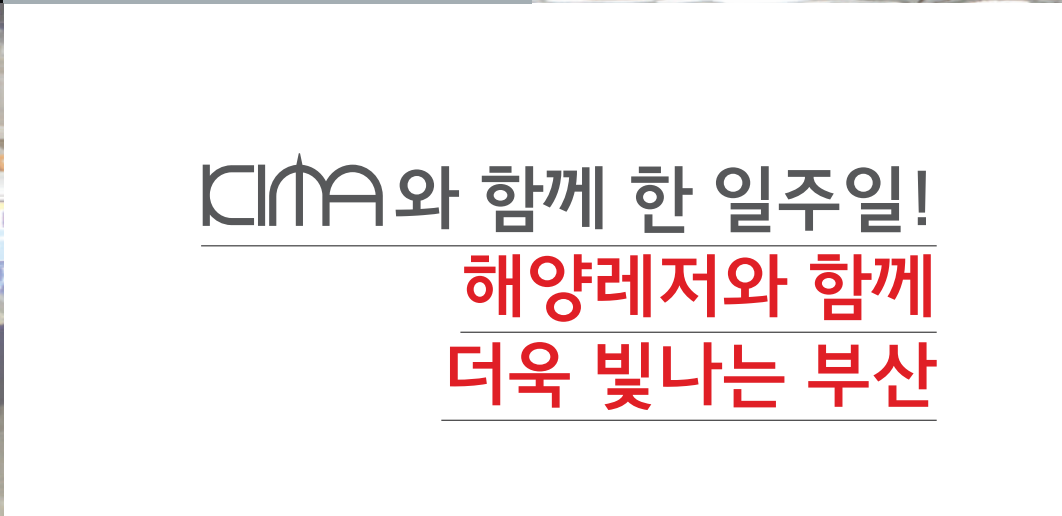
詩人이 그토록 간절히 끌어올리고 싶었던 것은
태양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합니다.

시퍼렇게 얼어붙은 바다를 붉게 달궂놓은 뜨거운 열정,
칠흑 같은 어둠을 단숨에 깨뜨려버린 그 찬란한 희망 ...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 앞에서 새해를 기다립니다.

을미년,
KIMA의 바다 위로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한해 되시길 ... KIMA



KIMA와 함께 한 일주일! 해양레저와 함께 더욱 빛나는 부산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축제, 2014년 9월 29일(월)부터 10월 5일(일)까지 다양한 해양레저 관련 행사들로 풍성했던 일주일이었다. 특히 2014년에는 부산국제보트산업전도 개최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KIMA WEEK 2014! 그 다이내믹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갈무리해본다.



REVIEW

해양레저도시 부산의 새로운 얼굴 부산국제보트산업전

BUSAN INTERNATIONAL BOATSHOW

요트! 이름만 들어도 왠지모를 고급스러움과 근사함이 느껴지는 피조물. 보통의 사람들에게 요트는 먼 미래의 일이며 어쩌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이카루스의 꿈일거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요트가 어느새 사람들 틈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던 아이템이 아닌, 너나없이 타보리라 결심만 하면 쉽게 몸을 실어볼 수 있는 꽤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꿈꾸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준 자리,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그곳에서 생긴 일들을 돌아켜본다.

보트산업전에선 뭘 보여줬나

2014년 10월 2일(목) 벅스코 제1전시장(과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사업인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이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개막식에는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정부관계자와 업계, 해

외바이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업체들이 준비한 창의성과 테크놀러지, 에너지 절약, 글로벌한 최고급 럭셔리 요트까지 시가 수백달러에 달하는 제품 등을 선보이며 나흘동안 펼쳐질 전시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해양레저와 marina 시설을 갖춘 부산의 인프라를 십분활용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육상전시와 해상전시를 동시에 마련한 제1회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다른 지역 전시회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과시하며 해양레저산업 메카로서의 부산의 지명도를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었다.



첫술에도
배부르다

2013년 첫 선을 보인 KIMA WEEK가 2회째를 맞으며 야심차게 선보인 부산국제보트산업전, 파끈파끈한 신상 전시라기엔 상상이상의 눈여겨볼 만한 성과들을 거둬들였다. 7개국 120개사가 총 822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국내 보트쇼 사상 최대 규모의 요트와 보트 완제품을 전시했고 개막식 당일, 이미 국내·외 우수 요트와 보트 업체의 전시품 시연을 통해 4건의 공개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또한 조선과 항공을 융합한 차세대 해양운송수단으로써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연구개발과 제조 전문기업인 아론비행선박산업(주)이 말레이시아 리나니 그룹과 순수독자기술로 개발한 8인승 위그선 Aron M80 모델의 수출계약협약에 도장을 찍었고, (주)우남마린 역시 말레이시아 MRI 테크놀로지사와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사용할 군용고속단정 20척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제휴 협약식도 함께 진행돼 국내 해양레저산업 부흥의 신호탄을 함께 쏘아올렸다. 파워보트 제조기업인 디택이 뉴질랜드 시레그즈사와, 폰툰제조업체인 스코트라가 호주 슈퍼리어사와 각각 1건의 기술제휴협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선박 관련부품 제조강국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행사 기간동안 국내 요트, 보트 제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가업체의 글로벌 마케팅과 수출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1대 1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한 것은 물론, 해외에서 참가한 60여개 바이어 업체가 총 212건, 1381억원의 상담계약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전시회 시간동안 1천 200억원대의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하니 이만하면 꽤 배부른 첫술이 아닌가 싶다.



66

해외 바이어 초청
1대 1 비즈니스 상담 진행
60여개 해외 바이어 업체 참가
총 212건, 1,381억원의 상담계약
전시기간 중 1천 200억원대
상담 성과 실적

99

해양수도는
역시 부산

세계 5위권 규모의 해운과 수산산업의 중심지, 마rina 시설 인프라와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 부산. 특히 부산은 동북아 주요 도시들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 1년 내내 다양한 해양수산관련 전시회를 맞이하는 국제해양도시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제조선·해양산업전(코마린)을 비롯해 국

제해양플랜트전시회(OK)와 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부산이 2014년, 국제보트산업전까지 상황리에 이끌어냄으로써 명실공히 해양수산 관련 전시회를 모두 개최하는 해양 MICE 도시로 거듭 태어났다. 보트산업전을 계기로 국내 레저선박과 기자재 제조업체들의 아시아 지역 진출 기회를 확대한 것은 물론, 부산을 포함한 인근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새로운 해양레저 비즈니스 시장이 창출될 것이며, 지속적인 전시회 개최를 이어나갈 때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아시아의 해양레저산업 중심기지로써 성장해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의 바다에 요트를 띄워라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칸 영화제는 바다 위에 펼쳐진 수많은 요트가 전해주는 감흥으로 기억된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부산국제영화제 역시 수영만을 수놓은 화려한 요트의 향연과 함께 추억될 것이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Marine BIFF Zone’ 덕분이다.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 영화제에 참가한 영화인과 제작자, 관계자들에게 무료 요트체험이라는 기분좋은 프로그램을 선사했다.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더베이101’에서 진행된 요트 체험행사는 해운대에서 출발해 다이아몬드 브릿지 일대를 항해하며 가을밤 눈부신 부산의 광경을 고스란히 전달하기에 충분했으며, 평소 접하기 쉽지 않았던 요트체험을 비롯해 생활 저변에서 해양을 향유하는 즐거움과 가치를 누릴수 있는 만족스런 시간이 됐다.

아시아의 킬위크를 꿈꾸다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 첫 걸음마를 내딛은 단계.

해양수산부는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이 포함된 KIMA WEEK를 아시아의 킬위크(Kieler Woche)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킬위크 축제는 요트레이스를 중심으로 전시, 공연, 이벤트, 스포츠, 컨퍼런스 등 문화, 스포츠를 망라한 관광축제다.

KIMA WEEK가 킬위크로 가기까지는 마arina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제도개선, 내수수출을 위한 기업육성까지 여러 부문에서 걸림돌이 산적해 있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해양레저산업의 생산지와 소비지로써의 강점을 갖춘 부산이기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도전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부산뿐 아니라 경남과 경기, 인천과 제주, 전남, 강원 등 바다를 접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요트산업 육성을 미래동력 산업으로 표방하고 나섰다. 이처럼 요트 붐이 일고 있는 까닭은 요트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내 선박 기술등과 맞물려 산업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트사업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뜻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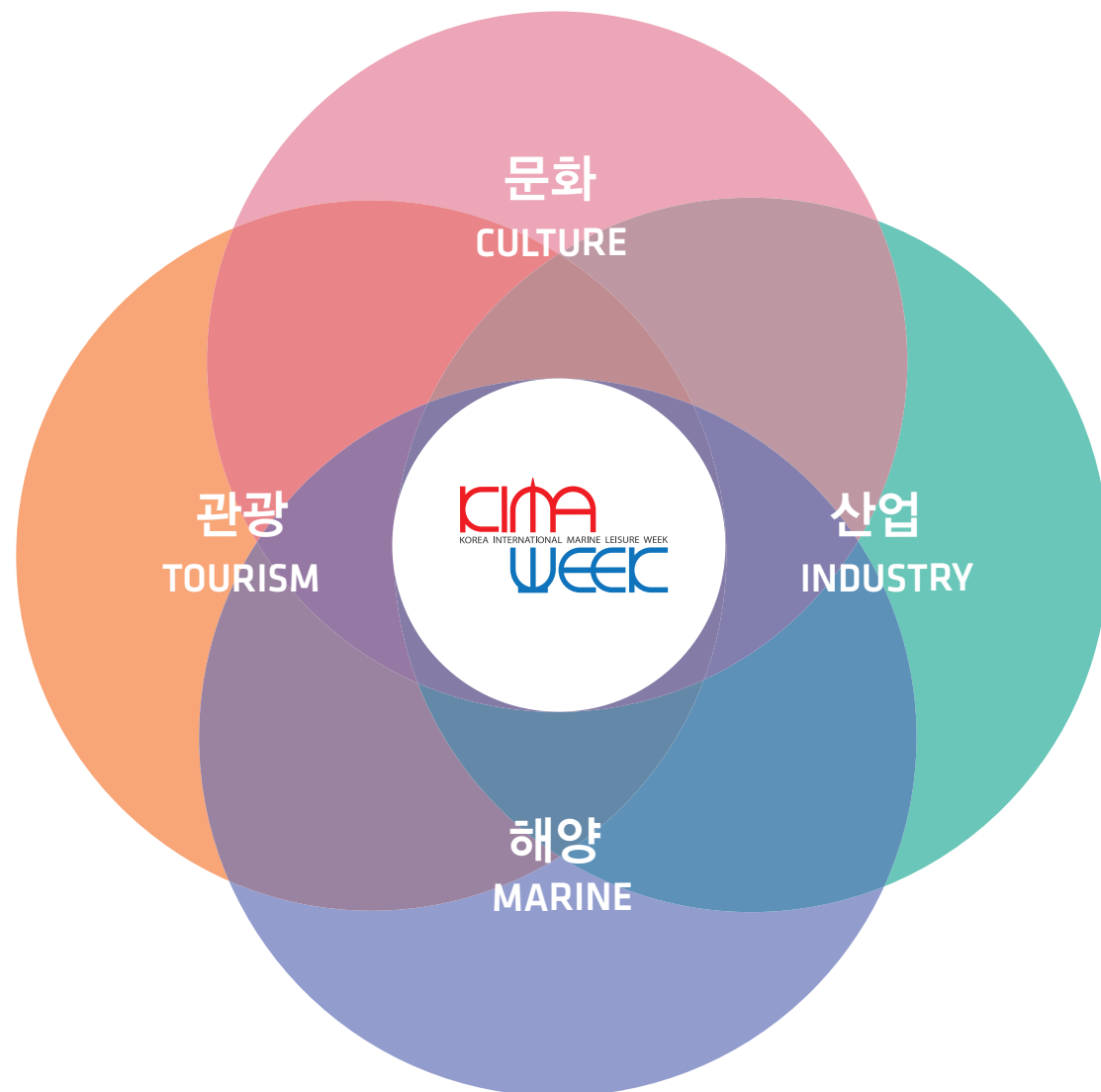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요트시장의 규모를 선점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물밑작업이 한창인 이때, 부산 역시 세계적 해양허브로서의 요건을 하나씩 갖춰나간다면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 제고는 물론 관련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KIMA+**

글 _ 노은영



벌써 기대된다, 2015 전시회

부산국제보트쇼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선 부산의 미래 먹거리가 걸려있는 중요한 산업전시회다. 치밀한 전략구축으로 부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레저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부산의 국제적 도시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외형적인 성장이 거듭될수록 동시에 내실이 기해져 부산을 해양레저산업의 허브로 우뚝 서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의 두 번째 전시회에서는 보다 더 많은 요트와 보트를 육·해상에서 접할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전시회로 우뚝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우리에게 다가온 바다를, 바다를 누비는 요트와 보트를 이제는 맘껏 누려볼 시간이다.



KIMA WEEK 2015 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는 2015년 2월10일(화),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KIMA WEEK 2015의 본격적인 실행준비에 들어간다. KIMA WEEK는 2015년에도 해양을 중심으로 산업, 문화, 관광의 조화로운 융합을 이루고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글로벌 해양레저축제를 열어갈 것이다. 올해는 기존의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중인 KIMA WEEK 2015의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미리 만나보자.

CULTURE

- 해양 버라이어티프로그램 제작 | 국내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서 해양레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활용한 미션을 수행하는 해양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 부산영상위원회 연계사업
- 부산국제영화제 협력사업 | Marine BIFF Zone 영화제 참석 영화인과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크루즈 및 요트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국제보트산업전 해상전시장 내 Marine BIFF Zone 운영

INDUSTRY

- 국제컨퍼런스 | 국제 해양레저산업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 해양레저 산업 및 업계 CEO를 초청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
-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 해양레저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보트산업전을 개최
- KIMA WEEK Awards |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국내외 비즈니스 관계자간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공이 큰 기업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상

TOURISM

- Seatrade Cruise Korea | 대한민국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국내 지자체, 항만당국, 관광업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크루즈 국제행사
- KIMA WEEK Tour Pass
- KIMA WEEK Fam Tour
- KIMA WEEK Grand Sale(예정)

MARINE

- 어린이요트 페스티벌
- 달빛수영 페스티벌
- 선상낚시 페스티벌
-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 국제드래곤보트대회 | 한국, 중국, 홍콩, 일본 등 6개국 이상이 참가하여 용머리로 치장된 드래곤보트에 12명/22명이 승선해 펼치는 국제대회
- Extreme Sailing Series(예정)

익스트림 세일링 이제 부산에서 만나자!

EXTREME SAILING SERIES

전 세계 세일링 마니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요트대회가 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짜릿한 박진감을 선사하는 대회, 2007년 영국에서 시작된 익스트림 세일링 시리즈(Extreme Sailing Serie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아메리카스컵, 볼보 오션레이스, 알파리월드매치레이싱투어와 함께 세계 4대 공인 요트대회로 꼽히는 Extreme Sailing Series! 2015년 9회째를 맞이하는 ESS를 어쩌면 대한민국 부산에서 만나보는 행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두 돌을 맞은 KIMA WEEK(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와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의 첫 단추를 무사히 채운 KIMA가 올해는 더욱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매년 6~9개의 유치도시를 선정해 올림픽 선수와 아메리카스컵 선수 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는 ESS의 유치를 추진중이라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사무국 측은 지난 연말에 열린 호주 대회를 참관하며 대회조직위 측과 구체적인 미팅을 가지기도 했다.

바다 위의 F1 이라 불리는 ESS는 2007년 영국 OC Sport에서 창안한 요트경기로 2014년 총 8회 대회까지 전세계 수많은 팬들의 관심속에 성대하게 치러졌다. 관중의 관람 편의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좁은 경기장 내에서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 ESS는 1년 동안 전세계 선정도시를 다니며 4일간의 레이싱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선보인다. 특히 ESS에 출전하는 12m에 달하는 Extreme 40 쌍동선은 규모와 속도면에서 보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익스트림 세일링이란?

익스트림 세일링 시리즈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세일링 경기의 하나로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국제적 명성의 남녀 요트선수들이 참가한다. 빠르고 민첩한 익스트림 40(Extreme 40 catamarans)으로 경쟁을 벌이는 경기로 다른 많은 세일링 대회와 달리 전 세계의 상징적인 명소들에서 엄격한 규정 하에 레이스를 펼친다. 레이싱코스과 해안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힌 탓에 스피드와 흥미진진한 장관을 바로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각각의 대회는 4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10분에서 20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스타디엄 레이스 시리즈가 매일 최대 8회까지 펼쳐진다.



EXTREME SAILING SERIES 출전요트



- ① Boom 붐
- ② Jib 집
- ③ Mast 마스트
- ④ Mainsail 메인세일
- ⑤ Dagger board 대거보드
- ⑥ Hullis 홀리스
- ⑦ Rudders 키
- ⑧ Trampoline 트램폴린
- ⑨ Gennaker 제네커



익스트림 세일링에 출전하는 요트의 특징

익스트림 세일링 시리즈에 출전하는 요트는 익스트림 40 쌍동선이다.
익스트림 40 쌍동선 요트는 가장 크면서도 빠른 레이싱요트로 브레이크는 제공되지 않는다.
동체가 양쪽으로 2개가 있고 선체길이만 무려 40피트에 이른다.

대회운영 방법

레이스는 해안에서 열리는데 정해진 지점들을 돌아돌아 제일 처음으로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방식이다.
세일링이니만큼 당연히 바람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바람을 가르며 항해하는 목직한 스피드가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 경기를 하려면 엄청난 전략과 경험, 팀웍은 필수요건이다. 전세계 내노라하는 선수들이 포함된 참가팀들은 12미터에 다다르는 익스트림40 보트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짧은 경기운영시간과 해안 가까운 곳에서 펼쳐지는 것이 특징인 만큼 ESS 특유의 긴박감과 짜릿함을 맛볼 수 있다. 익스트림 40은 거의 한쪽 홀(hull)만 수면에 닿은채로 하늘을 날다시피 하여 시속 74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는 장관을 선사한다.

www.extremesailingseries.com/racing

가치 _ 정서적 가치 & 경제적 가치

KIMA WEEK가 ESS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치적 측면이다.
지난해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을 개최하며 해양허브로의 발판을 마련한 부산이 올해 다시 익스트림 세일링 시리즈 유치에 성공한다면 도시브랜드 가치의 상승은 물론, 국제해양허브로의 위상 또한 확고히 구축할 수 있다. 전 세계 온·오프라인 관람객을 통한 강력한 홍보효과 외에도 맞춤형 파트너 후원 패키지를 제공해 관광객 유치와 투자확대, 무역통상 진흥과 홍보효과 등의 복합적 기회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ESS는 검증된 비즈니스의 장으로 매 대회때마다 마리나 선주와 요트 관계자들, 각종 후원단체와 주최 기관들이 모여드는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이를 수치로 따지면 400억 원 상당의 글로벌 홍보가치 효과와 CNBC, Sky Sports, Fox Sports, Eurosport, Al Jazeera, ESPN 등 세계 54개 채널의 중계방송으로 10억 명 이상의 누적 시청자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중계시간만 무려 500시간 이상, 유튜브 등을 통한 조회 수는 무려 100만회 이상을 육박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ESS를 찾은 관람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니 도시의 홍보효과는 과히 상상이상이라 할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ESS는 돌아온다.
전세계 3개 대륙에 걸쳐 상징적인 장소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월드 투어가 2월 성대한 막을 올린다. 2015년의 출발점은 역동적인 도시 싱가포르이다. 몇 개의 도시를 방문한 다음, 어딘가 색다른 도시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ESS여, 부산으로 오라! 그대가 부산을 찾을 이유는 확실하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이다. 도심과 바다, 영화가 어우러진 근사한 해양도시, 2015년의 어느날, 부산이 세계의 요트마니아들로 떠들썩해지길 기대해본다. **KIMA+**

브라질 쉬퍼요트 부산을 주목하다



SCHAEFER YACHTS



전 세계가 바다Ocean를 최고의 블루오션 Blue Ocean으로 주목한 가운데, 세계적인 요트제조사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해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도 세계요트업계의 '거물'들이 눈도장을 찍었다. 전시 이를 빼앗던 10월 3일(금), BEXCO에 마련된 브라질 요트 브랜드 쉬퍼(Schaefer)사 부스에서 기분 좋은 박수소리가 전해졌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쉬퍼(Schaefer)사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왼쪽사진).



쉐퍼요트,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업무협약 부산을 아시아 생산기지로 추진 검토

이번 MOU를 통해 쉐퍼(Schaefer)사의 최고경영자인 마르시오 루스 쉐퍼(52) 회장은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이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마르시오 루스 쉐퍼(52) 회장은 문철호 대표이사장(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을 만난 자리에서 “브라질과 미국 등은 요트 산업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의 요트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아시아시장 진출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부산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도시”라고 말했다. 세계 3위의 요트 제조업체

인 브라질 쉐퍼(Schaefer)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부산지역에 요트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었다. KIMA WEEK와의 조우를 통해 부산과 인연의 물꼬를 튼 쉐퍼 회장은 같은 날 오후, 서병수 부산시장을 만나 부산투자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4일(토)에는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과의 만나 부산 진출시 기술 및 인력 지원문제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마르시오 루스 쉐퍼 회장은 10월 6일(월),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권의 해양레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아시아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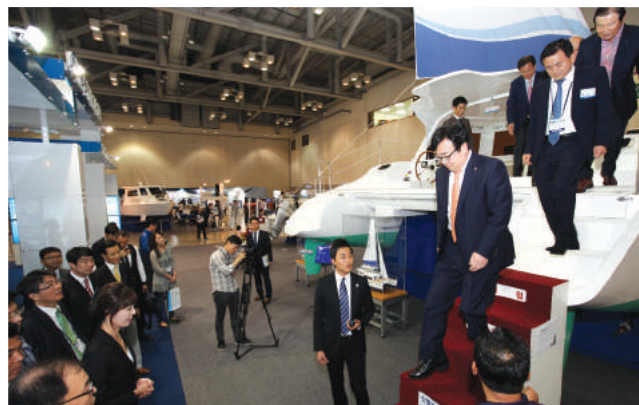
쉐퍼 회장은 부산이 바다와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요트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파워보트 등 요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고,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 산업의 메카인 부산에서 요트를 생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쉐퍼(Schaefer)사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요트 제조업체로 공장 규모와 기술력 수준에서는 이탈리아의 아지무트, 미국 씨레이에 이어 세계 3위 업체이다. 10m급 소형 요트에서 25m급 초대형 요트까지 두루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130억 원으로 200대 이상의 요트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쉐퍼(Schaefer)가 아시아 생산기지를 구축할 경우 초기에는 브라질 본사에서 개발을 완료한 모델을 도입해 조립생산하고, 시장규모가 커지면 현지 대학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기 등을 자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르시오 루스 쉐퍼 회장은 “부산은 해양레포츠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의 수출기지로도 입지가 뛰어나다”며 “본국에 돌아가 부산 방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쉐퍼사의 'Schaefer 303'은 부산보트쇼가 선정한 올해의 요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KIMA+



브라질 Schaefer Yachts가 자랑하는 요트 시리즈

● ● ● CHAEFER 800



● ● ● SCHAEFER 500 HT



● ● ● PHANTOM 400



● ● ● PHANTOM 300



옛 그림 속에서 만난 한국의 뱃놀이
boating in old pictures ❸

심사정의 선.유.도

현재(玄齋) 심사정이 만년에 그린 작은 그림 한 점.
선유도는 조선시대 뱃놀이를 그린 작품 가운데 바다의 파도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바다는 폭풍이 이는 듯 험한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하늘에는 먹구름인지 먼 바다 풍랑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물결이 굽이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작은 쪽배는 놀라우리만큼 평정을 보여준다. 격랑 중에도 뱃놀이 중인 두 선비의 표정에는 옅은 미소마저 비친다.

畫中有我 화중유아
그림 속에 내가 있다는 말처럼, 이 그림은 단순히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그린 것이 아니다. 겸재의 제자로 조선후기를 대표했던 문인화가였으나, 양반의 삶은 고사하고 평생 역모죄인의 후손으로 고달픈 생을 살았던 심사정은 화폭에 세상살이에 초연해야 했던 자신의 심경을 담아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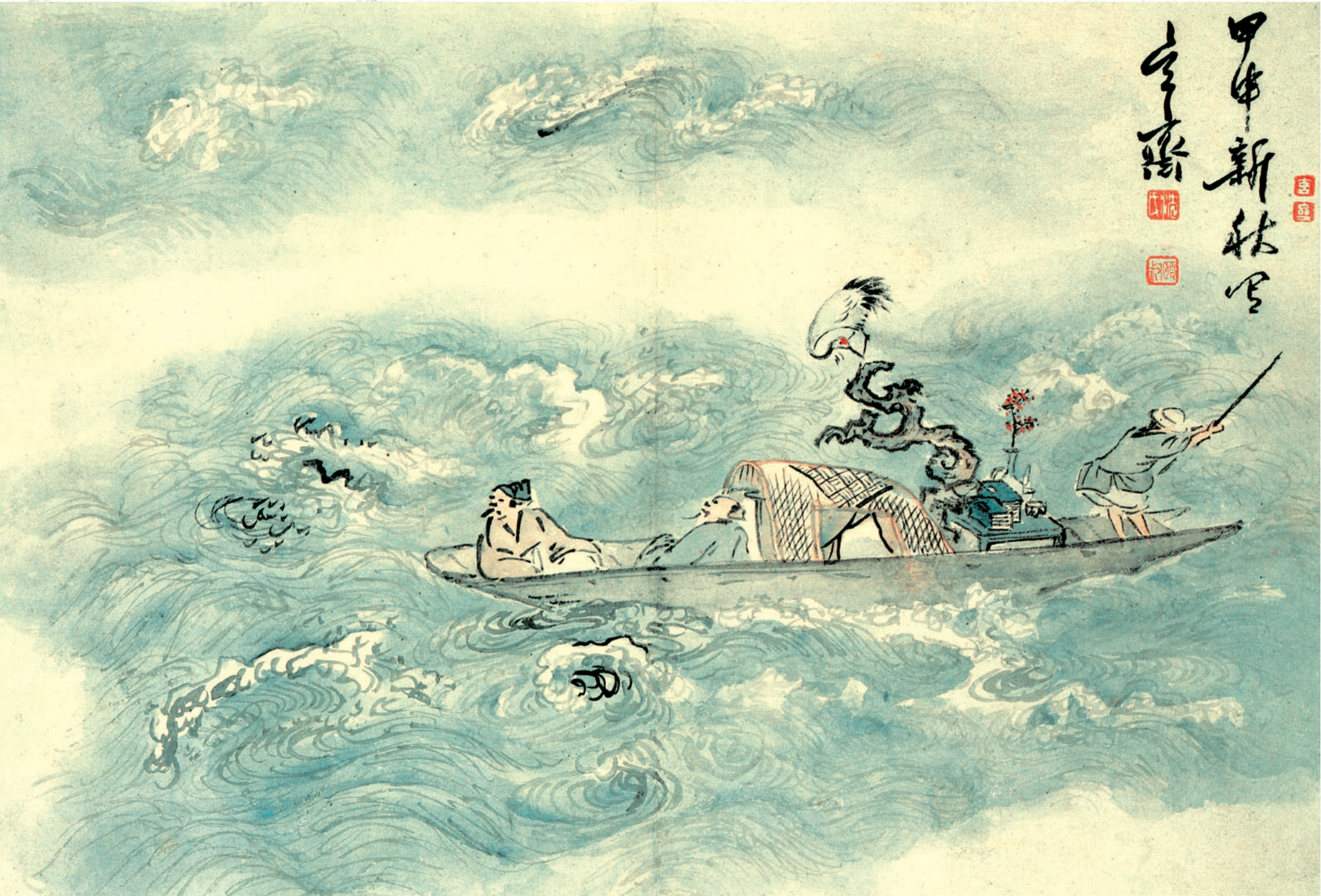
심사정의 선유도에서는 선비들의 맑고 아름다운 취미도 엿볼 수 있다. 우선 배의 한가운데 서안이 놓였고, 그 위에 서책과 화병, 술잔이 보인다. 화병에는 홍매가 피었고, 그 꼭대기에 학이 앉아 선유의 절정을 보여준다. 매화는 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봄을 부른다 했던가. 격랑 속에서 봄을 부르는 선비의 표정에는 관조를 넘어 태연자약의 극치가 묻어있다.
“파도야 얼마든지 오너라, 내 너를 벗 삼아 놀아주리라”

2015년 새해의 항해가 시작되었다. 세파는 언제나 격랑이다.
파도 앞에는 두려워 피하는 사람과 파도를 타고 노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오늘 심사정이 말하고픈 〈선유〉는 격랑 가운데 누리는 평정.
KIMA WEEK는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들, 아니 즐길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격랑 중에도 매화 한 송이 피워낼 수 있는 2015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옛 그림에 새해인사를 실어보낸다. KIMA+

船遊圖

선유도
심사정作 1764년
종이에 담채 39.5 x 27 cm
개인소장



의료관광 선진도시, **BUSAN** 해양관광인프라로 매력을 더하다!



저성장, 저고용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료·보건, 쇼핑, 숙박,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의료관광산업이다.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한 의료관광산업은 타 산업과의 상승효과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기대만큼이나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의료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진료비가 저렴해 경쟁력이 높다.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 관광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시설 장비 2위, 의료서비스 4위, 기술 수준 9위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국내 의료관광 사업은 1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역시, 민선6기 공약사항인 '체류형 의료관광도시 부산' 구현 및 '2020년 의료관광객 20만 명 유치로 아시아 3대 의료관광 도시' 진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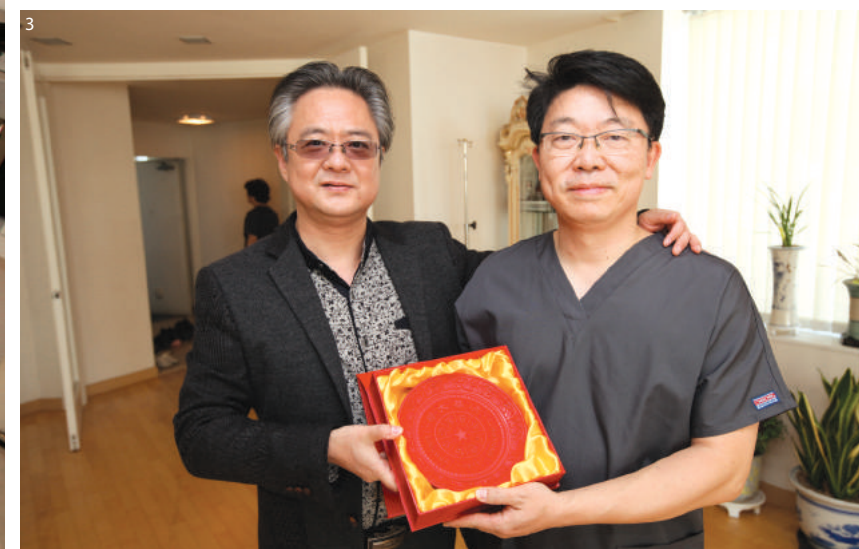
서면과 해운대 지역의 특급호텔 주변 개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미용, 성형, 피부 관리, 치과, 안과, 한방, 건강검진 등 의료수준과 비용 우위를 기반으로 한 수요가 확보되어 잠재력이 입증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 분야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다 권역별로 최첨단 보건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해 거점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양적 성장과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질적 성장 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부산의 신성장동력산업, 의료관광! 동북아시아 의료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부산의 노력을 살펴본다.

메디컬한류 해양레저로 통하다

중국 청화대
단둥제일병원
부산 팸투어



CASE 01

국내의 뛰어난 의료 기술이 외국 의료진들의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중국 청화대 단둥제일병원 성형 의료 관계자들과 병원관계자 16명이 부산을 찾았다. 해운대 제네시스성형외과를 비롯해 오뎃세이치과, 서면 밝은눈안과 등을 찾아 부산의 선진화된 의료장비와 시스템을 둘러보고 각 분야 원장들의 의료기술을 지켜봤다.

탁 트인 바다전망의 해운대 제네시스 성형외과에서는 최첨단 의료장비와 더불어 병원 주변의 다양한 관광인프라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김수영 원장의 성형시술을 직접 받아보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각 병원의 다양한 첨단 시설은 물론, 수술내용과 서비스 강의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병원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병원 IT시스템에도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다,

2013년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관광객은 20만 명 중, 의료관광수입은 3,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강 관련 여행수지 역시 2011년 흑자로 돌아선 뒤, 2013년 처음으로 흑자액이 1억 달러(약 1,100억 원)를 넘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관광이 허용된 지 4년 만에 이룬 성과다. 특히,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데는 '큰 손'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의 역할이 컸다.

2009년 4,725명(전체의 7.9%)에 불과했던 중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2010년 1만 2,789명(15.6%)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1년엔 1만 9,222명(15.7%)으로 늘었다. 2012년에는 3만 2,503명(20.4%)의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대거 입국했고 2013년에는 5만 6,075명(26.5%)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66

중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2010년 12,789명(15.6%) ▲

2011년 19,222명(15.7%) ▲

2012년 32,503명(20.4%) ▲

2013년 56,075명(26.5%) ▲

99

관광객 수로 보면 그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5년 전보다 무려 12배나 늘어났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부산시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부산의 의료관광 인프라 소개와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함께하는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에 사활을 걸었다. 부산시의 이러한 행보는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에 따른 경제효과 상생을 위한 기대한 것으로 부산대를 비롯한 4개 대학병원을 비롯해 부산의 유명 의료기관들 역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에 나서고 있다. **KIMA+**



- 1 오뎃세이치과를 방문하여 선진 치과기술을 소개받고 있는 중국 청화대 단둥제일병원 의료진
- 2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MOU체결 후 병원투어 중인 중국 청화대 단둥제일병원 의료진
- 3 중국 청화대 단둥제일병원과 제네시스성형외과의 업무협약
- 4 중국 의료진에게 실제 시술사례들을 프레젠테이션 중인 제네시스성형외과 의료진

인텐시브 의료관광 부산 주목하다

독일 칼 자이스
부산에서 학회 개최

CASE 02

독일 칼 자이스 Carl Zeiss사가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굴절레이저 수술학회 2014'가 지난해 11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3일간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2년마다 한 번씩 아시아태평양지역 안과 의사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심포지엄으로 기존 고객뿐 아니라 잠재고객 가능성이 큰 시장성과 참석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올수 있는 교통편을 고려해 학회 장소를 부산으로 택한 것이다.

학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주요 의료진들을 비롯해 세계 최대 광학 기업인 칼 자이스 사의 관계자 100여명은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Site Visits 행사일정으로 부산 밝은세상안과를 방문하여 원내 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투어는 첨단 레이저 장비와 IT기술이 접목된 8층 정밀검사센터를 시작으로 9층 종합수술센터, 10층 외래진료센터까지 둘러보며 밝은세상안과의 세계적 수준의 첨단시설과 기술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9일(토) 갈라 디너가 마련된 더베이101에서는 식전 퓨전 국악쇼와 각테일 쇼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칼 자이스 관계자는 이번 학회는 부산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의 행사지원은 물론 부산롯데호텔의 여러 가지 도움이 컸으며, 무엇보다 한국과 세계시장에서 가지는 부산 병원들의 브랜드 파워가 큰 작용을 했다고 전했다.

부산은 서울 등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기술 인프라에 따뜻한 기후, 해양관광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동북아



더베이 101에 마련된 갈라 디너쇼



1 부산 롯데호텔에서 진행중인 아시아태평양 굴절레이저 수술학회
2 2박 3일간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

66

해양관광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동북아 대표 관문도시, 부산.
사계절 체류형 의료관광도시로 가능성

99



대표 관문도시이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다면 사계절 체류형 의료관광도시로 충분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오는 2020년에는 연간 20만 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해 싱가포르, 태국 방콕에 이은 아시아 3대 의료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부산시의 포부가 충분히 승산 있다고 여겨진다. 일찍이 신속하고 정확한 부산의료관광 정보제공을 위해 부산의료관광 통합플랫폼 '부산의료관광(bsmeditour)'을 구축해 서비스 중인 부산시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와 러시아어로 최적의 의료관광지인 부산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 태국 등 의료관광 경쟁국의 도시들과 차별화된 정보제공으로 세계 최고 의료관광 선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검진을 비롯한 총 7개 섹션에서 테마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관광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부산을 찾는 의료관광객수는 러시아 의료관광객이 가장 많지만 앞으로 우리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와 해양관광을 무기로 중국 내륙지역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의료관광산업 규모는 급격히 커질 것이다.

해외 환자 유치의 주요한 조건으로는 비자(VISA)와 직항 노선 여부를 꼽을 수 있다.

해외 환자 유치에 있어 인천시가 부산을 턱밑까지 추격한 것도 인천국제공항의 존재가 절대적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의료관광 산업이 부산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항노선의 확충과 더불어 24시간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 신공항 건설, 사후검진을 위한 원격의료 등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하루빨리 크고 작은 걸림돌들이 개선돼 부산이 의료관광산업 선진도시가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의료관광 선진도시를 우리 부산의 브랜드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의 노력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그 씨앗을 뿌려야 한다. KIMA+

글 _ 노은영



2014 국회정책토론회

작년 12월 10일(수),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해양레저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새누리당 나성린의원원과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는 이 토론회는 2014년 3회째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실제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자리인 만큼 해마다 산학연관을 아울러 뜨거운 관심과 열띤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 이주영 전)해양수산부 장관, 정경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하면서 본 토론회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으며, 해양레저 관련 업계와 학계의 주요 인사들과 방청객들이 참석하여 해양레저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활성화 방안에 보다 실제적인 토론의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2014국회정책토론회 현장의 주요내용을 지면으로 옮겨보았다.

해양레저 규제완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국회의장 정의화



“우리바다는 활발한 해상교역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집약적인 성장을 이끌어냈다 … 앞으로도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 수려한 경관과 역동성 등 바다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의 해양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전)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정부차원에서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 2014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방안들을 향후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행할 때 충분히 반영하여 해양관광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한국이 바다의 가치를 깨닫고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열심히 서포트하겠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대표이사장 문철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출범한지 2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부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해양레저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주신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희망한다. 2014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질책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해양레저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2부 순서로 본격적인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부구옥 영산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산업관광연구실장의 주제발표로 시작하여 6인이 토론자가 참석한 주제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는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 김철우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 정용문 한국관광공사 동남권 협력지사장, 강석주 (주)CKIPM 대표이사, 조현욱 아론비행선박산업 (주) 대표이사, 이성용 (주)블루마린요트 대표이사 등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 토론자들은 해양레저를 비롯한 해양관광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완화와 법령개선의 당위성과 이를 통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해보자.



Keynote Speech 주제발표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산업관광연구실장

- 양관광산업 동향
 - 국내외 관광시장이 해양에 관심을 가지고 해양관광 활동을 성장시킬 전망
- 국내 해양관광 여건 분석
 - 해양레저의 대중화와 관광 기반 시설을 위한 확충이 필요하며 제조 및 서비스 시장 경쟁력은 아직 취약함
 - 해양레저 활동 관리 기반이 미약하며 해양레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양관광 활성화 방안
 - 친수문화의 확산을 통해 시장을 육성한다면 해양레저 대중화 촉진 가능
 - 해양레저 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력 제고하고, 연관 산업 동반성장을 유도
 - 분산되어 있는 해양레저 정책간의 연계성을 개선하여 육성체계의 협력 필요

Discuss Subject 주제토론

1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정책은?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

“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현재 약 15만 명, 레저 선박은 약 13,000척 이며 급성장 추세에 있다”
“해양레저산업은 점차 발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다 수정해야 된다”

■ 요·보트 등 수상레저

- 완화된 조건의 마리나 선박대여업을 신설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13.10.31)로 국회에 발의한 상태

■ 해수욕장 물놀이

- <해수욕장의 이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12.4) 시행하여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반 마련

■ 수중레저

-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4년 11월에 대표발의하여 수중레저 분야에 대한 법률을 정책화할 계획



2 안전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

김철우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

“해양문화의 보급 및 체험교육이 선행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해양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해양 문화, 자원, 놀이, 스포츠, 과학, 법, 전시, 관람, 체험을 하는 ‘국립해양문화안전교육관’ 건립과 해양레저안전통합시스템 마련이 중요시하다”

■ 해양문화의 보급과 체험 교육이 선행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

- 해양안전에 관한 문화 자원 놀이 제도 등을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는 국립해양문화 안전교육관 건립 필요

■ 해양레저안전통합시스템 마련이 필요

-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법의 일관성 및 관계 정부부처의 협력을 통해 내수면 ONE-STOP 안전관리 대응 체계 구축

3 부산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道.天.地.然.法

정용문 한국관광공사 동남권협력지사장

“해양레저 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자와 캠페인이 필요하고 마리나 시설 확대 등 외부 환경 벤치마킹을 활용 및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 내부역량 및 홍보마케팅의 강화

- 해양레저인프라 투자와 해양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KIMA WEEK와 같은 해양레저관광 관련행사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추진 리더십의 확립

- 해양수산국이 부산의 해양레저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해양레저 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의견 수렴 및 과제 점검

4 마리나 항만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강석주 (주)CKIPM 대표이사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마린아가 이미 활성화된 곳은 국내 계류비 대비 3~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공공과 민간이 서로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상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시장에 충분한 계류 수요가 있고, 다채로운 요구수준의 이용자가 많을 때 가능하다.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공공 마린아가 개발되었지만 향후 모든 마린가를 개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공유수면 점·사용료

- 점·사용료에 따른 계류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이용자 감소 악순환
- 점·사용료의 한시적 전액감면 및 감면을 대폭 조정 필요

■ 마리나 항만 개발에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

- 공공보다는 민간의 참여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함

6 해양레저 규제완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해양레저 사업의 투자자금 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수입요트의 해양레저 영업 투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파워요트, 세일요트 보험의 세분화 방안이 시급하다”

■ 해양 레저사업의 투자 자금 활성화에 대한 방안

- 관광 유망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있지만, 요트 사업에 관한 금융상품 부재

■ 수입요트의 해양레저영업투입에 대한 규제완화

- 국제선습협회(ACS)를 통해 이미 검증된 수입 요·보트에 대해 국내에서 불필요한 재검사를 요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등록절차와 규제 등에 대한 완화가 필요 KIMA+

5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
법규정 개선(안) 건의



조현욱 아론비행선박산업(주) 대표이사

“수면비행선박 조정사 양성을 위한 조종교관 자격 인정이 시급하며, 해양레저·운송 관련법들의 유기적 결합 미비로 산업 및 관광 발전에 저해된다”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양성을 위한 조종교관 자격인정이 시급

- 해양시운전 및 조종사 양성교관에 대한 면허 제도를 시행하여 최초 해상시운전 면허를 소지한 조종사가 운항할 수 있어야 함
- 점·사용료의 한시적 전액감면 및 감면을 대폭 조정 필요

■ 해양이동 수단의 제약규정을 단순화

- 해양교통 관련 수단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해양교통 노선의 단순화 및 교통수단의 다양성 등의 효과 기대



이성용 (주)블루마린요트 대표이사

“해양레저 통한 경제 활성화 길 찾기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INTERVIEW

나성린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홈페이지 <http://www.nasl.or.kr/>

트 위 터 http://mobile.twitter.com/na_sl



KIMA 지난 연말, 국회의원 나성린 의원과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공동주최로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어떤 의미 있는 논의들이 있었는가?

나성린 올해의 주제는 ‘해양레저 규제완화를 통한 해양관광활성화 방안’이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해양레저 분야의 산업을 일으키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레저 분야의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자리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현행법령분석부터 개편방안까지 제시해주셔서 의미있는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안다.

KIMA 해마다 꾸준히 해양레저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계신데,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나성린 결국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것이다. 국가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강함만을 뜻하기보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레저 분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특히, 제가 지역구로 섬기고 있는 부산지역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며,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이다. 지금은 가진 잠재력을 일으켜 활성화시키는데 아이디어를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목소리가 기탄없이 쏟아져 나와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발전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책토론회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IMA 언제부턴가 ‘해양강국 코리아’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된다. 한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서 가진 잠재력은 어느 정도라 보시는가?

나성린 삼면이 바다라는 환경은 그야 말로 천혜다. 그래서 얻게 된 것이 조선. 해운 강국의 명성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지금은 ‘해양레저’가 열쇠인데, 국내 해양레저분야는 다른 해양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뒤처져 있다. 해양레저는 문화적 요소가 강한 만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처음 부산 문화방송이 해양레저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을 때 동의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은 천혜의 환경만 자랑하며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시대다. 주어진 해양환경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내어야 한다. 인프라를 강화하고, 레저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해양레저도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지 않을 수 없다.

KIMA 2월10일이면 KIMA WEEK 2015 조직위원회가 출범한다. 당부와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나성린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에너지와 문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 의미있는 기획이라 생각한다. 어느새 KIMA WEEK도 3회를 이어가게 되니 더불어 기쁘다. 해마다 성과도 남다르다고 들었다. 작년에는 국제보트쇼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들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KIMA WEEK를 기대한다. 2015년에도 더 좋은 기획과 열정적인 실행력으로 해양레저산업과 해양레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IMA+**

아론비행선박산업(주)



www.cnsamt.com	
대표	조현욱
설립	2008년
주요제품	중소형 수면비행선박(위그선)
Number	본사 Tel. 055-834-6556 구매관련문의 070-7011-1223 E-mail sales@aron.co.kr
Address	본사 및 제1조선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온정 1길 63

아론비행선박산업(주)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고부가가치 차세대선박인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연구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아론비행선박산업(주)은 세계 최초 B-TYPE 위그선(고도 상승이 가능한 최초의 상용화 위그선) 개발에 성공, 위그선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끈질긴 기술개발과 투자의 결실이다.

위그선은 고속선박의 성능과 항공기의 비행능력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선박으로서 시속 200km 이상으로도 운항할 수 있어 여객용으로 활용하면 운항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또 해수면 저항을 받지 않아 에너지 소모가 기존 선박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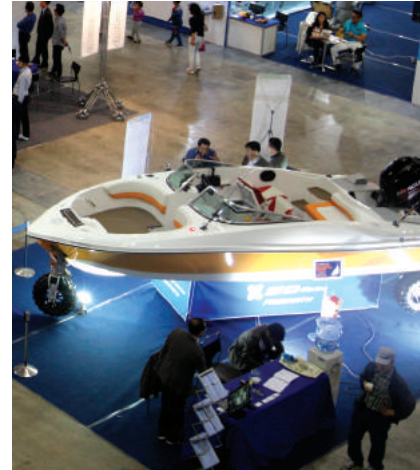
특히, 다양한 무기 장착이 가능해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해상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2014년 4월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 등 정부기관 고위층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식 시연비행을 통해 아론의 안정성과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위그선 운항을 위해 관련법규를 전담하는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위그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론비행선박산업(주)이 개발한 위그선은 수면 5m에서 150m까지 날 수 있으며, 최대 속력은 시속 280km다. 대당 가격은 100만 달러 정도다. 2013년에는 항공선진국인 미국으로 수출을 한데 이어, 2014년 8월에는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모델 M50은 기존 250마력에서 300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행안전장비를 탑재하는 등 더욱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자랑한다. 말레이시아에서 해양유전 시추선 인원수송 및 구조구난용으로 시범운행 후 올해부터 100개가 넘는 말레이시아 해양유전기지로 기술자 및 화물을 수송하는 헬기를 대체하여 운항될 계획이다. 아론비행선박산업(주)은 해외수출에 탄력을 받아 세계각국으로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 섬나라의 차세대 해양운송수단으로서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론은 울릉도에 있는 위그코리아사로부터 포항~울릉도 여객수송용 8인승급(모델 M80) 3척을 수주하여, 올해 초 한국 선급을 통해 안전검사를 위한 M80 공식구조 안정성 평가에 이미 착수했다. 내년부터는 부산에서 해상관광용 위그선 운항사업에 진출할 한국 최대 종합레저그룹과 8월중 계약체결 진행 중이다.



(주)성동마린



www.sdmarine.kr	
대표	김중재
설립	2014년
주요제품	수륙양용보트 시스템 솔루션
Number	Tel 041-754-8100 Fax 041-754-8101 E-mail kjj6877@hanmail.net
Address	본사 대전시 유성구 문지로 193번지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진리관 336 연구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무금로2413

(주)성동마린은 국내 최초의 수륙양용보트, 시스템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보트의 수륙양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계, 제작하는 회사로 2011년 초부터 수륙양용보트의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3년 후인 2014년에 설립된 해양레저산업 벤처기업이다.

특히, (주)성동마린은 수륙양용 보트의 핵심기술인 랜딩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륙양용 보트 부문 특허 2건, 출원 3건, 국제특허 1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기술을 기반으로 4미터 급 수륙양용 레저보트, 6미터 급 수륙양용 스포츠 보트, 8미터 급 수륙양용 낚시보트 등을 개발해오며 국내 및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주)성동마린의 수륙양용 시스템은 육·해상 자동변환기어박스장치, 육상 이동 견인장치, 스크류 자동장치, 하이브리드 장치, 모터를 이용한 상하 승강링크장치, 육·해상 핸들 자동장치, 모터식 자동장치, Full Auto 자동변환 장치 등으로 100% 국내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자체 보유한 특허와 기술력을 통해 (주)성동마린만의 수륙양용보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성동마린의 제품은 주로 레저스포츠용과 어민 조업 및 낚시용, 긴급 구난 및 구조의 용도로 제작되고 있으며, 엔진 구동 없이 배터리 및 모터로 구동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보트의 경우 은밀한 군 작전에도 사용 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해 10월 2일(목)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서는 (주)성동마린의 수륙양용보트가 소형보트 스포츠보트 부문에서 올해의 보트로 선정되어 ‘올해의 보트상(Boat of the year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100% 국내 기술을 자랑하는 (주)성동마린은 현재 보트와 수륙양용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공정을 통해서 생산하기 위한 자체 선체 제작용 몰드 제작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스코트라(주)



www.scotra.co.kr

대표	이종목
설립	법인 설립 2007년
주요제품	멀티룸 플로트
Number	Tel 052-223-0591 Fax 052-223-0716
Address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4 공장 및 부설연구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888-5

스코트라(주)는 수상 플로팅시스템이라는 블루오션 시장의 선두기업이다.

2007년 법인 설립 이래 꾸준한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코트라(주)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반형 플로트 및 특허 제품인 멀티룸형 플로트를 활용한 계류장, 마리나 시설, 수상레저용 폰툰, 공사용 바지 및 어촌개발용 부잔교 등의 제조와 설치, 임대 등 수상 플로팅 시스템 사업을 키워오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설비투자, R&D투자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수상레저업계 및 어촌 종합개발사업과 4대강 개발사업, 해외시장 등을 적극 개척하여 계류장, 마리나, 다목적 폰툰 설비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으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코트라(주)는 자사 플로트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 용이성, 친환경성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해,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도 참가해 멀티룸플로트(Multi-room float), 제너럴플로트(General float), 펀보트(Fun boat)를 선보였다. 주력 제품인 멀티룸플로트는 내부에 구성된 9개의 공간으로 멀티룸을 형성하여 월등한 안정성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난슬립 패드가 부착돼 있어 보행자의 안전 및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시켰고 다른 형태의 폰툰 시공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형 마리나 및 계류장 시현이 가능해 경제적이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중 격변시스템으로 멀티룸을 형성해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한쪽면의 파손으로도 부력을 유지시키고 계절에 따른 팽창감이 생기지 않는다. 배터리는 한 번 충전시 일반적으로 8시간, 연속적으로 3시간 사용 가능하다.

유아용 펀보트는 시속 5노트 이내로 장시간 안전 운행이 가능하며, 사정거리 10m의 물총을 장착한 신개념 전동식 수상레저기구로서 손쉬운 조작이 가능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1900년 이어도(전설의 섬)를 처음 발견한 영국 상선의 이름을 딴 '스코트라'는 수상 환경의 무한한 가치를 믿으며 고객만족을 목표 삼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고, 수출 증대와 함께 국내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할 계획이라는 스코트라(주)는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을 통해 호주 슈퍼리아사와 각각 1건의 기술제휴 협약을 해 우리나라가 선박·관련부품 제조강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트핸즈

www.arthands.co.kr

대표	김석철
설립	2003년
주요제품	제품디자인, 요트디자인
Number	Tel 051-741-8342 Fax 051-741-8344
Address	본사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 6로 21 인텔리움센텀 407호



“진정한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2003년에 설립된 아트핸즈는 보트에서의 다양한 사용성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만족하는 최고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이다. 보트, 요트, 디자인, 전문낚시, 레저분야에서 문구, 사무용품, 정보통신기기, 디지털 가전, 배선기구, 산업용품, 의료용품, 제품 UI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자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아트핸즈가 해양레저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2010~2011년, 부산디자인센터로부터 연합SB가 개발한 덩기요트 'WINDA'의 디자인개발을 의뢰받으면서부터다. 이후 2013년 요트디자인 전문기업 핸드마린(HANDS MARINE)을 설립하여 세일링보트, 레저보트, 해양레저용품 등의 디자인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트핸즈는 전문엔지니어링을 통한 최고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공학기반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해양레저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요트디자인 기업을 꿈꾼다.

아트핸즈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외 보트쇼와 디자인박람회를 통해 독특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개념의 투명카약이 그 주인공이다.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서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투명카약은 '답답한 도시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컨셉으로 디자인한 제품으로 선체를 투명처리함으로써 강과 해양이 주는 자연의 정서를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감성아이템이다. 또한 상하 결합구조로 제작되어 물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학베이스로 개발되었으며, 생산과 사용이 용이하며, 저렴한 가격까지 더해져 구매력을 높이고 있다.



KIMA BRIEF

KIMA WEEK 2014 조직위원회 해단식

2014. 11. 11, 더베이101 마린홀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조직위원회는 11월 11일, 더베이101 마린홀에서 해단식으로 가졌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해단식에서는 행사 경과보고, 평가와 더불어 KIMA WEEK 2014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한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보다 발전적인 2015년을 기약했다.

KIMA WEEK 2015 프로그램 및 콘텐츠 사업 공모

2014. 12. 22,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에서는 보다 창의적인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KIMA WEEK 2015 기간중 진행되는 콘텐츠 사업을 공모했다. 총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KIMA WEEK Tour Pass' 앱 개발사업으로 참가한 (주)블루컴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부산관광컨벤션포럼 공동개최

2014. 11. 27, 벡스코 제 2전시장



이번 포럼은 '부산의 미래, 복합리조트와 해양관광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복합리조트와 해양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복합리조트 및 해양관광 관련 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서원석 교수,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김철우 교수, 한국 크루즈의료관광협의회 최재형 사무총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2015년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

2015. 1. 26, 부산MBC 8층 대회의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2015년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1월 26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 소속 위원들과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각 위원회별 2015년 주요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여한웅 사무총장은 KIMA WEEK 2015에 대한 기본 계획과 함께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KIMA WEEK 2015는 2월 10일 조직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2014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2014. 12. 10,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나성린 국회의원과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문철호 대표이사장)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2014 국회정책토론회」가 "해양레저 규제완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과 해양레저산업 관련 현행 법령 분석 및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부산 마리나선박지원사업& APP 개발 회의

2015. 2 4, 부산MBC 8층 대회의실



KIMA WEEK 조직위원회는 'KIMA WEEK Tour Pass' 앱 개발을 위해 부산 마리나선박지원사업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부산지역의 마리나 선박사업 관계자 및 KIMA WEEK 콘텐츠 관련 협력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KIMA WEEK Tour Pass' 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실효성 있는 아이템과 운영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KIMA+ Report

KIMA WEEK 2014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
Result Analysis & Development Plan

KIMA WEEK 2014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 발행

KIMA WEEK의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KIMA WEEK(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KIMA WEEK 2014의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부경대학교 김용재 교수를 연구책임교수로 한 공동연구팀에 의뢰했다. 지난 2014년 12월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총 4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본 지에서는 요약본을 KIMA Report로 소개한다.



조사분석방법

- 이 조사는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된 KIMA WEEK 2014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함
- 이 조사는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된 KIMA WEEK 2014 주요 프로그램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 참가한 일반관람객, 참가업체, 해양스포츠 무료체험 참가자, 어린이요트대회 참가자 및 동행자들을 모집단으로 함
- 이 조사는 모집단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과 전주조사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함
- 각 조사대상에 대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18.0ver. 프로그램으로 빈도 분석, 교차분석, 차이분석(t-검정, 일원분산 분석), 회귀 분석법을 이용함.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 김용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교수
- 공동연구 김규곤 동의대학교 데이터정보학과 교수 | 장병기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장길항 부산컨텐츠마켓(BCM) 자문위원 | 김영돈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박사 | 정영주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박사 | 김건우 부경대학교 마린융합디자인 협동과정 박사과정 | 김효성 부경대학교 마린융합디자인 협동과정 석사과정

Result Analysis & Development Plan

KIMA WEEK 2014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요약본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 WEEK 2014)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해양레저산업의 환경 분석, 국내·외 주요 해양레저산업 관련 행사 및 보트쇼와의 비교분석, 다각적인 분석법을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행사 참여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통계분석·인터뷰 등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하며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점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보다 현실적이며 전문적인 발전방안 및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KIMA WEEK 2014 행사개요

행사 명칭 | 제2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 WEEK 2014)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후 원 | 대한요트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부산 MBC

특별후원 | 스타자동차(주), (주)골든블루, (주)삼주

협 력 | 부산광역시 요트협회, (사)대한드래곤보트협회, 부울경 바다수영연합회,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행사기간 | 2014. 9. 29.(월) ~ 2014. 10. 5.(일), 7일간

참여인원 | 약 16,000여명

행사장소 | 부산 해운대, 광안리, 수영강, BEXCO 일대

주 제 |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해양레저 축제

주요행사 | Grand Opening

부산국제보트산업전

국제 컨퍼런스

국제 드래곤보트대회 / 어린이 요트대회 / 광안리 달빛 수영대회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부산국제영화제 연계행사(Marine BIFF Zone)

● **국제보트산업전 개최결과**

관 람 객 | 총 11,808명(육상 10,658명 / 해상 1,150명)

참가업체 | 7개국, 120개사, 822 부스(해외6개국 7개사 15부스)

해외바이어 | 60명(14개국 60개사 / 상담 37개사, 참관 23개사)

– 유치기관 : KOTRA – 11개국 52개사, 57명 유치

직접 수익

– 참가비 수익 : 약 2억 6,136만원

– 입장료 수익 : 약 898만원

간접 수익

– 계약완료 : 5건, 59억 3천만 원

– 계약추진 : 42건, 286억 9천만원(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해외 계약 추진 실적 다수)

– 상담실적 : 495건, 1,267억 8천만 원(계약추진액 포함) (해외 175건, 1,102억 2천만원, 국내 320건 165억 6천만원)

– 참가사 투자유치 추진 : 4건(브라질 Schaefer사 약 220억 원 규모의 투자 희망 등)

– 기술제휴협약 : 2건(호주, 뉴질랜드 국가와 보트 및 폰툰 제조 기술 협약)

● **기타 행사 개최결과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개막식	약 500여명 참석	
국제컨퍼런스	약 200여명 참석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986명 체험 (사전예약 1,965명)	태풍으로 3일 행사취소
어린이요트대회	약 80여명 참가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총 12회 방영	
제2회 광안리 달빛수영대회	–	태풍으로 행사취소
Marine BIFF Zone	총 215명 참가	

3. 실태분석

● **일반관람객**

– 관람객들의 행사의 정보 취득방법은 TV가 가장 높았지만, 그 외 다양한 홍보활동 또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관람객들의 관람시간은 대부분이 2시간 이내로 관람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람객의 관람시간을 늘리기 위한 볼거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정보제공, 부스홍보물, 편의시설, 물리적 환경, 서비스품질에서는 여성의 만족도가 높았다.

– 홍보이벤트는 30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 정보제공과 재방문의도는 사무직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 물리적 환경, 서비스품질은 보트쇼에 처음 참가한 관람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 정보제공, 부스홍보물, 물리적환경, 구전의도는 해외보트쇼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관람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품질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정보제공, 부스홍보물, 전시장, 홍보이벤트와 지각된 품질의 하위요인인 물리적환경, 서비스품질, 제

품품질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품질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정보제공, 편의시설, 홍보이벤트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품질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편의시설, 홍보이벤트에서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각된 품질의 하위요인인 물리적 환경, 서비스품질, 제품품질이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트쇼 만족도가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가업체**

– 전시인프라는 영남권, 주최자 홍보는 충청호남권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트쇼를 통해 얻은 성과의 하위요인인 판매활동에서는 처음 참가한 업체가 만족도가 높았으며, 동기부여활동은 2~4회 참가한 업체가 만족도가 높았다.

– 선택속성의 하위요인인 관람객 구조, 주최자 홍보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트쇼를 통해 얻은 성과의 하위요인인 관계구축이 만족도,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택속성의 하위요인인 관람객 구조가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택속성의 하위요인인 관람객 구조, 주최자 홍보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트쇼를 통해 얻은 성과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 관계구축, 이미지구축이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트쇼 참가업체의 만족도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 해양레포츠 무료체험의 만족도는 1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레포츠 무료체험을 통한 감정, 기억, 인지된 가치는 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즐거움과 기술발달은 보트체험에 참여한 체험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레포츠 무료체험을 통한 감정, 기억, 인지된 가치는 보트체험에 참여한 체험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레포츠 무료체험을 통한 재참여의도와 구전의도는 보트체험에 참여한 체험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즐거움과 감정은 2회이상 참여한 체험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외적과시는 직장동료/동호회에서 참여한 체험자가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즐거움과 컨디션과 인지된 가치가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즐거움과 컨디션이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컨디션이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레포츠 무료체험을 통한 기억과 인지된 가치가 재참여의도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만족도가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요트대회**

– 대회요인의 하위요인인 대회진행은 여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회요인의 하위요인인 장소와 코스는 30대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회요인의 하위요인인 코스는 친구/동호회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요트대회 참가자들은 대회요인의 하위요인인 대회진행과 인적서비스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요트대회 참가자의 만족도가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및 MICE 산업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결과

참가업체의 계약액(58.7억)과 더불어 계약추진액(278.9억)의 50%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의 지역별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전국에 걸쳐 477.9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45.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72.6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지역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99.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4.6억원, 고용창출효과는 86.4명
-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282.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3.7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166.2명

시나리오	지역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	노동유발(명)
참가업체 계약추진액 50%포함	전국	47,785.4	14,515.8	272.6
	부산	47,785.4	3,465.2	86.4
	부울경	28,213.6	8,371.1	166.2

참가업체 계약추진액 50% 포함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명)

● MICE산업적 효과

- 시설산업 측면 → 3차 관광산업 활성화
- 운영산업 측면 → 식음료, 오락, 관광매력 산업 활성화
- 지원산업 측면 → 교통과 기타 인프라 산업 활성화

● MICE산업적 발전방안

- B2C에 치우친 전시 및 각종 연계프로그램 → B2B측면의 비즈니스 매칭과 컨퍼런스 위주의 프로그램의 발전
- 일반 관광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개최시기 10월은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바이어 유치에 있어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단순 전시 컨벤션을 넘어 확장된 전시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성과 다양한 Incentive Program 개발이 필요

5. KIMA WEEK 2014 발전 방안

1) 운영방안 및 홍보마케팅

- ①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활성화 | 디자인 어워드 개최
부산디자인센터와 연계를 통한 부산만의 특색있는 해양레저장비 디자인어워드 개최
- ② 국제보트산업전 개최시기 조정 | 해양레저 문화의 저변확대 차원(비가시적 성과)과 산업적 측면의 성과(가시적 성과)을 모두 고려했을 경우라면 산업적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성수기 시즌 전(5월경)이 더욱 더 효과적임
- ③ 개최일정의 조기 결정 | 지속적인 행사인 점을 일반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인식시키는 방안으로 행사의 개최일정을 조기 결정을 통해 최대한 일찍 홍보를 시작

- ④ IFBSO 가입 및 공식 승인을 위한 TFT 구성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가입 및 공식 승인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 TFT 구성이 필요
- ⑤ 온라인/SNS 마케팅 발전방안 모색 | SNS 마케팅 활동은 일반 마케팅과 다르게 편리한 단체 DM 및 정보 제공, 무의식적 정보 습득 등 다양한 효과가 있어 연쇄적 회원 확보에 주효

2)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 방안

- 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참가자들이 체험 활동을 통해서 최소 4시간 이상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② 생태관광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 단순하고 획일화된 현재 부산의 해양관광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3) 행사별 세부 발전방안

(1) 부산국제보트산업전 발전방안

- ① 부산외 지역의 홍보방안 모색 | 전국적인 규모의 보트쇼로 발전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마케팅 방안 모색이 필요
- ② 신생 해양레저 관련 업체의 기회 제공의 장 마련 | 영세 해양레저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보트쇼 참여나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과 R&D 분야의 적극적 지원 / 부산지역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트 구축
- ③ 여가목적의 일반 방문객을 대상의 보편적 프로그램 개발 | 연예인이나 가수 등 유명인을 초청하는 이벤트 개최 / 해양레저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 관람객도 참여할 수 있는 웨이크보드 실전 게임, 낚시 게임, 보트 조종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오락시설 구비


(2)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 ①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각각의 종목의 체험 기획의 확대와 축소를 통한 효율적인 재편성 / 해맞이 요트투어나 해넘이 요트투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모색 / 카약, 카누, 서핑, 바나나보트와 같은 보다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추가
- ② 무료체험 신청방법 수정 및 보완 | 1인당 하나의 IP 또는 ID로 1회 신청 제한을 두는 방안 / 현장접수 시스템을 도입 / 연계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탑승기회를 우선 제공

(3) 어린이요트대회

- ① 적극적인 대회홍보 방안 마련 | 작은 규모와 미비한 효과로 대회를 중단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회를 보다 활성화

4) 정책적 제언 및 기타 발전방안

- ① 해양안전의 중요성 강조 | 해양안전과 관련된 완성품이나 용품을 전시 또는 체험하게 하여 해양레저와 안전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창조
- ② 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 해양생태 해설사 또는 지역문화해설사와 같은 인증제도를 신설 / 마리나항만으로 씨의 어촌어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 ③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축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구축 / 안전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운영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해양레저가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Korea Marine Leisure Network



KIMA 2015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부산국제보트산업전

2015.9.17(목) ▶ 9.20(일)
BEXCO |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최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KOREA MARINE LEISURE NETWORK

 kotra  BEXCO

시간을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탄생

시간을 초월한 듯,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의 가치처럼
최고의 맛과 품격으로 탄생한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36.5도의 부드러운 목넘김과 오랜 전통을 간직한 블렌딩까지-
빛나는 내일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GOLDEN BLUE
The Diamond
슈퍼프리미엄 위스키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직업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부산의 미래는
시민의 자부심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KIMA 2015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주관 **BEXCO**

후원  대한요트협회  KSPOT  한국관광공사  BPA  부산항만공사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BC

특별후원  롯데마트  롯데홈  롯데슈퍼 (주)골든블루

www.kimaweek.org